닮쇠뿔을 이용해 만든 화각공예는 그 어떤 공예품 보다 화려해 왕실이나 귀족이 즐겨 사용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8>

千年 왕실공예의 정수 '華角'

제29호 화각장 한 춘 섭씨

소(牛)의 위엄을 상징하는 날카롭고 엄청난 뿔도 그를 만나면 색색의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변신한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9호 화각장(華角匠) 한춘섭씨(55·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17세때부터 시작한 그의 화각공예는 유난히 찬란하다. 조선시대 왕족공예품 재연가로 화각, 대목, 유기, 나전 등 12공예가 모두 능했던 故 음일천 선생에게 기술을 사사한 이력도 그렇거니와 한길만을 걸어온 지 40여년을 바라보는 경력은 화려함을 자랑하는 화각에 빛을 더 한다.

화각은 쇠뿔로 만든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를 말한다. 재료의 귀함이나 화려함을 뽐내는 외형은 귀족 집안이나 왕실에서 사용돼 왔음을 말해준다. 기원은 신라시대때로 추정되나 남아 있는 유물이 많지 않아 확실한 고증이 어렵다. 하지만 재료 자체가 우리 고유의 쇠뿔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겼다는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故 음일천 선생 사사… 40년 외길

왕실·귀족이 사용한 고급 공예품

한씨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여년전 수입소의 뿔을 가져다가 화각공예를 시도해 봤다. 결과는 실패.

"외국산 쇠뿔은 투명도가 떨어지고 색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화각공예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또한 암소뿔도 사용할 수 없는데 뿔 속이 꽉 차 있어 공예작업이 어렵습니다."

작업은 우선 3 5년생의 원추형 쇠뿔의 꼭지를 5cm 가량 자르는 것부터 시작된다. 꼭지를 자른 뿔의 옆면을 세로방향으로 갈라 반을 켠 뒤 물에 삶은 다음 장작불에 굽는다. 구운 뿔은 평평하게 만들어 프레스(압축기)를 이용해 완전히 펴지게 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직사각형이나 원하는 모양으로 마름질 한다. 이 때 펴진 뿔의 두께는 1mm. 뿔의 표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사포로 민다. 사포로 밀어 정리가 되면 건조실에서 3개월 정도를 보관하게 되는데 습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불에 3~4초간 굽는 작업도 거친다. 이 뿔을 가위로 원하는 크기만큼 마름질 한다. 이렇게 다듬어진 쇠뿔 판을 '각지'라 한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각지 위에 그림을 그리면 일단의 스케치가 완성되는데 이 때 그림은 반대로 그려야 한다. 즉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반대쪽이 겉 표면이 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반대로 되게 그린다. 이 후 그림에 따라 채색과 무늬 등을 넣는다. 이것이 마르면 붉은 색으로 바탕과 덧칠을 한다. 이 때 반대쪽(완성시 보이는 겉 표면)은 그림을 액자에 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접착제를 바르고 사포질로 겉 표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끝. 이를 사전에 준비한 농이나 반짇고리 등의 형물에 부착하면 화각공예품이 완성된다.

"큰 틀의 작업공정만 26번입니다. 하지만 표면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만해도 수백번이고 광택을 내거나 코팅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화각공예를 혼자 작업하는 것은 꽤나 어렵다. 한씨의 경우 문양과 채색 등 그림에 관한한 이수자로 예정돼 있는 큰아들 기택씨(30)가 도맡아 한다.

화각은 쇠뿔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제품크기에 제한이 있다. 예물함이나 보석함, 구절판 같은 것은 외부 전체를 화각으로 싸기도 하지만 장에는 작은 타일 모양으로 만들어 장식 그림처럼 앞 쪽이나 문과 서랍 등 작은 공간에 붙인다. 이 때 화각과 화각의 연결되는 부위는 사골 뼈를 깎아 실처럼 동그랗게 만든 것으로 마감한다. 여기에 색을 입히기도 하는데 이 역시 화각 못지 않은 깨끗하고 밝은 질감을 준다. 화각의 원색찬란한 광택이 바로 소에서 나오는 것이란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

한우 3~5년생 수소 뿔만 사용

독특한 제작 방법…세계 유일

한씨는 현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위치한 한 건물지하에 작업장을 갖고 있다. 이 곳에서만 25년째. 창이 없어 어둡기만한 작업공간은 형광등 2개와 전구 한개만이 불을 밝히고 있다. 그 모습은 꼭 조상들이 촛불 하나로 붉을 밝히며 책을 읽었던 시대를 연상케 한다.

"협소하지만 오래된 공간이 편합니다. 깔끔하거나 정돈되진 않았지만 옛 느낌 그대로를 간직한 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공예의 참 맛을 실을 수 있죠."

사실 한씨는 나전칠기로 처음 공예와 인연을 맺었다. 15세때부터 시작해 2년여의 세월을 나전칠기와 보냈다. 하지만 항상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고 성이 차질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이내 이를 풀어내는 실타래 하나가 우연히 찾아들었다. 집안 사정으로 고교진학이 어려워 기술을 택하게 된 한씨는 형의 소개로 당시 유일하게 화각공예 기술을 갖고 있던 음일천 선생을 만나게 된다. 음 선생의 화각공예품을 본 순간 첫눈에 매료됐고 이 때부터 나전칠기를 접고 화각에 뛰어 들었다.

"화각공예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금은 심심한 듯한 우리 전통공예품과 다르게 톡톡 튀는 색과 문양이 제 마음을 빨아들였다고나 할까요."

한씨가 처음 화각공예를 배울 때는 큰 결점이 하나 있었다. 다름 아닌 쇠뿔이 생물질이란 점 때문에 내구성이 없어 뒤틀리거나 오래가지 못했다. 화각의 기원이 오래됐음에도 유물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이에 한씨는 이를 보완코자 수 일을 고민 속에 보냈다. 상품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매끈한 광택·찬란한 원색 '매력적'

십장생·무속도·민화등 문양 '이채'

"재료나 기법 등 방법을 모두 공개할 순 없지만 코팅을 생각하면 됩니다. 완성된 화각에 옷을 입혀 오래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택도 한결 더 빛나죠."

때문에 한씨의 화각공예품은 100여년은 거뜬하다. 내구성 또한 견고하며 십장생 무늬를 비롯한 전통회화, 무속도, 민속풍경, 민화 등의 아름다운 문양은 한씨의 화각공예품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재작년에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나 일본수상 등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빈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한씨의 화각공예품을 선물로 증정했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클린턴 등 국빈들에 선물 '명성'

점차 쇠뿔 없어져 脈 끊길 위기

하지만 이러한 화각공예를 볼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게 한씨의 설명이다. 여느 무형문화재처럼 배우려 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각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주가 되는 쇠뿔 때문이다.

"우리의 쇠뿔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에 뿔이 나려면 적어도 3년생은 돼야 하는데 요즘은 식용을 위해 인공적으로 소를 키우니 뿔을 얻기가 어렵죠."

그 때문일까. 최근 한씨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업장 한켠에 '각지'를 쌓아 놓고 사포로 미는 모습은 쇠뿔이 없어지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듯 하다. 재료가 있을 때 한 작품이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한씨. 수 년전 작업중에 다쳐 생겼다는 오른팔의 흉터가 빛나보이는 건 앞날을 계산하지 않고 한길만을 걷는 진정한 장인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강종민기자 ppkjm@kgib.co.kr